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 점복조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 만 태*

1. 머리말
2. 무라야마 지준의 관방(官房) 민속조사와 점복
3. 무라야마 지준의 점복조사 내용 분석
4. 무라야마 지준의 점복조사의 가치와 한계
5. 맺음말

<국문초록>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조선 민간신앙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의 占卜と豫言)』(1933)은 1930년대 초반까지의 조선의 점복풍속에 관해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점복 연구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점복 조사보고서는 제국주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관점과 간접적인 조사방법 등으로 인해 실상(實狀)을 과장·왜곡·누락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그의 점복조사에 대해 비판적 고찰이 별로 없었다.

점복풍속은 조선에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며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는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자의적(恣意的)으로 조선 점복풍속을 통해 조선인은 미개하고 타율적·소극적이라고 왜곡함으로써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 충실하였다.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ware4u@hanmail.net)

따라서 본 연구는 무라야마의 점복조사의 가치와 한계를 점복자료의 수집과 집성, 점복유형의 분류, 점복자료의 해설과 활용 측면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 주요어: 점복, 점복신앙, 점복조사, 민속신앙,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1. 머리말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인간은 척박한 생존환경 속에서 살아남고자 끊임없이 지혜를 발휘해왔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인간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그 결과를 미리 알아봄으로써 나쁜 상황은 피하고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나름대로 앞일의 결과를 미리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해왔다.

이런 방법들 중의 하나가 점복(占卜)으로서, 인간의 점복행위는 어느 시대, 어디서나 널리 존재해온 인류의 보편적 문화현상이다.¹⁾ 한반도에서도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 문화층에서 여러 점의 복골(卜骨)이 발견되고²⁾, 부여(夫餘)에서는 군사를 일으킬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소를 잡아 그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쳤다는³⁾ 등으로 볼 때 매우 일찍부터 점복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민속신앙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무속신앙과 점복신앙이다.⁴⁾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점복신앙에 관한 연구는 무속신앙이나 다른 민속신앙 분야에 비해 매우 미흡하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 김종대는 점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계의 연구풍토가 무속이나 마을 신앙 등으로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

1) 김만태, 「한국 점복의 정의와 유형 고찰」, 『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 204쪽.

2) 이형구, 『한국 고대 문화의 기원』, 까치, 1991, 112쪽.

3)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夫餘〉,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4) 류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현대사상사, 1984, 271~272쪽.

이런 가운데 조선총독부 촉탁 민속조사자였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1891~1968)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の占トと豫言)』(1933)이 한국점복 연구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서영대는 한국점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조선의 점복과 예언』부터라고 했으며⁶⁾, 최길성도 한국점복 연구의 출발점을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 두고 있다.⁷⁾

무라야마는 조선⁸⁾의 민간신앙을 규정하는 핵심어로 ‘귀신신앙·묘지풍수·무격의 양귀(攘鬼)·점복’ 등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무라야마의 조사보고서 가운데 『조선의 귀신(朝鮮の鬼神)』(1929), 『조선의 풍수(朝鮮の風水)』(1931), 『조선의 무격(朝鮮の巫覡)』(1932),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の占トと豫言)』(1933) 등이 이른바 ‘조선의 민간신앙’ 4부작으로 일컬어진다.

한국 민속문화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복신앙에 녹아있는 삶의 모습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무라야마의 민간신앙 조사보고서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는 무속 조사에 치중되어 있고, 점복 조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며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 관한 서평이나 해제(解題)에 대부분 그치고 있다.⁹⁾

따라서 본 연구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데 충실하였던 무라야마의 점복조사 내용을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の占トと豫言)』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비판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국 민속신앙의 중요한 축인 점복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 연구에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5) 김중대, 『점복의 역사』, 『한국민속사입문』, 지식산업사, 1996, 307쪽.

6) 서영대, 『한국점복의 연구』,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311쪽.

7) 최길성, 『점복과 예조의 분석』,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9, 247쪽.

8) 우리나라 국명을 1910년 8월 29일 이후 한일병합 기간 중에는 관례에 따라 ‘朝鮮’으로 칭한다.

9) 서평으로는 손진태의 『무라야마 지준 씨의 민간신앙 4부작을 읽고(村山智順氏の民間信仰四部作を讀みて)』(1933), 에다 도시오(江田俊雄)의 『무라야마 지준 씨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을 읽다(村山智順氏の『朝鮮の占トと豫言』を讀む)』(1933), 김효경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을 읽다(『朝鮮の占トと豫言』を讀む)』(1934) 등이 있고, 해제로는 최석영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 해설(『朝鮮の占トと豫言』 解題)』(2008)이 있다.

2. 무라야마 지준의 관방(官房) 민속조사와 점복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통치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바꾸면서 식민지배의 자료를 위해 조선사회의 실태를 깊이 조사할 필요성을 깨달아 조선의 구관(舊慣)에 대해 이전과 달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 시기 무라야마는 1919년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사회학 전공)를 졸업하고 같은 해 조선총독부 촉탁(囑託)에 임용되어 조선에 왔다.¹⁰⁾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은 “조선 통치상 제반 시설을 적절하게 하는 데는 조선의 구시(舊時)와 함께 현재 사회 각 반(班)의 사정을 조사하고, 또 조선사(朝鮮史) 연구로 정치상의 이해득실을 분명히 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종래에 조선 사회사정(社會事情)이 조직적으로 연구조사된 것이 없으므로 그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대정 8년(1919)부터 사회학 전공 문학사 무라야마 지준을 촉탁하여 연구에 착수하도록 한다.”¹¹⁾라고 하면서 무라야마로 하여금 5개년에 걸쳐 조선의 사회사정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점차 조선총독부 조사과(調査課)로 이관되었으며, 풍속(風俗) 조사도 조사과의 관방(官房) 조사자들이 주도하게 되었는데 무라야마가 그 일원이었다. 무라야마는 당시 조선인과 조선사회에 관해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여 『조선사회제도사(朝鮮社會制度史)』(1923)를 필두로 1941년 귀국할 때까지 일련의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¹²⁾

그중에서도 민간신앙에 관한 조사연구가 가장 괄목할 만한 것으로 손꼽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추려보면, 『조선의 귀신(朝鮮の鬼神)』(1929), 『조선의 풍수(朝鮮の風水)』(1931), 『조선의 무격(朝鮮の巫覡)』(1932),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の占トと豫言)』(1933), 『조선의 유사종교(朝鮮の類似宗教)』(1935), 『부락제(部落祭)』(1937), 『석전·기우·안택(釋奠·祈雨·

10) 朝倉敏夫, 『村山智順師の謎』, 『民博通信』 79, 日本國立民族學博物館, 1997, 107쪽.

11)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1938, 132쪽.

12) 김희영,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인식에 관한 연구: 일제강점기 민속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2, 9~10, 24~25쪽.

安宅)』(1938) 등이다.¹³⁾

이처럼 무라야마가 조선의 민간신앙에 치중한 까닭은 1929년에 간행된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25집이자 민간신앙 제1부로서, 무라야마의 민간신앙조사 자료의 실질적 첫출발이 되는 『조선의 귀신』 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목적은 뒤이어 발간되는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사상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인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간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순서상 마땅하고 자연스럽다.¹⁴⁾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고 조선인의 사상을 이해하는 요체는 바로 민간신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무라야마가 민속학 중에서도 특히 민간신앙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의문인데, 아사쿠라 도시오(朝倉敏夫)는 아마도 무라야마가 어린 나이(10살 무렵)에 모친을 여의고 절(日蓮宗 妙廣寺)에서 자란 것과 관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¹⁵⁾

민간신앙에 조선의 문화와 조선인의 사상이 가장 함축되어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기층문화의 핵심인 민간신앙은 기층민의 진솔한 삶의 모습이 여과 없이 나타나 있고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유구한 문화의 결집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이해의 목적이 전혀 학구적인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식민지 정책 수립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점이다.

무라야마가 일련의 민간신앙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던 조선인의 정신세계는 타자지향적(他者指向的) 관점에서 미신(迷信)으로 점철된 의타주

13) 김태곤, 「일제가 실시한 조선민간신앙조사 자료의 문제점」, 『石宙善교수회갑기념 민속학논총』, 石宙善교수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71, 271~272쪽.

14) 村山智順, 『朝鮮の鬼神』, 朝鮮總督府, 1929, 1쪽, “朝鮮の文化を理解するには朝鮮人の思想を了解しなければならぬ。朝鮮人の思想を了解するには民間信仰から出發するのが順當であり自然である。”

15) 朝倉敏夫, 앞의 책, 109쪽.

의(依他主義)·숙명의식(宿命意識)·열등의식(劣等意識)이었다. 그래서 내지인(內地人)의 지도·계몽으로 ‘센징(鮮人)’의 정신을 개조하고, 조선의 풍속을 개선하여 일선동조(日鮮同祖)와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작위적 동화주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기치로 ‘황국(皇國)’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충량한 신민(臣民)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다.¹⁶⁾

무라야마는 문명 진화론적 입장에서 일본은 문명, 조선은 야만·미개라는 양분적 사고 하에 조선의 민간신앙을 원시적이라고 파악하였으며, 조선인은 소극적인 운명론자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의 논의 밑에는 문화진화론을 통한 ‘식민지배의 정당화’가 깔려 있으며, 이는 피식민지 문화 중에서 저급성과 원시성을 띠고 있는 대상에 주목한 식민주의 담론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은 1930년대 초반 조선의 점복풍속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므로¹⁸⁾ 오늘날에도 참고할만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의 조사보고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자지향적 관점에서 식민주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간접적인 조사방법으로 인해 문제점들을 지적받고 있다.

김태곤에 의하면 이들 자료의 조사방법은 조선총독부에서 행정망을 이용해 전국 각 지방의 군청과 경찰서를 통해 공문으로 해당 민속조사를 하달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그 하달된 지시에 따라 민속자료를 조사하여 조선총독부에 공문으로 상달하면 중앙의 촉탁담당관인 무라야마가 종합하여 분류 체계화시켜 출판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문학자의 현지답사에 의한 직접조사 자료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학술적 태도의 절차를 거친 간접조사 방법이라도 되었어야 하는데 순사를 앞세운 관권에 의한 강압적 조사였기

16) 이에 대해서는 남근우가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제3장 〈일본인의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에서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17) 김희영, 앞의 글, 62·65·67쪽.

18) 노무라 신이치는 “한국 민족에게서 점의 백과는 거의 집약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될 만큼의 분량이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野村伸一, 『한국, 1930년대의 눈동자: 무라야마가 본 조선민속』, 고운기 역, 이회문화사, 2003, 283~284쪽.

에 조사된 자료의 차질과 왜곡이 자연히 초래되었다는 것이다.¹⁹⁾

당초 『조선의 점복과 예언』과 같이 발간될 예정이었던 『조선의 무격』의 범례(凡例)에 “본 조사의 자료 대부분은 각지 경찰서의 손을 번거롭게 해서 얻은 보고에 의한 것이다.”²⁰⁾라는 기록이 이런 사실을 잘 말해준다. 소위 탁상행정 방식으로 별도의 학술적·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행정기관을 통한 상명하달식의 강압적 조사에 의해 공문서처럼 양산된 보고서였기에 방대한 분량의 민간신앙 조사보고서가 통상 1.4년에 1편 꼴로 발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무라야마의 손을 거친 보고서의 분량이 총 5,371쪽이라고 한다.²¹⁾

이는 교통과 통신수단이 지극히 발전하였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수집과 처리·저장·전달 능력이 고도로 발달하고 체계화된 현대에서도 일개인이 이렇게 해내기에는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자료의 방대성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

지금까지 한국점복의 연구사적 맥락에서 『조선의 점복과 예언』을 바라보는 국내 점복 연구자들의 시각은 대략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한국점복에 대한 초기 연구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이미 있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조선의 점복과 예언』부터이며, 비록 그 의도가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에 있긴 하지만 방대한 자료집이란 점에서 그 가치를 부인할 수만은 없다는 서영대의 견해이다.²²⁾ 둘째, 『조선의 점복과 예언』을 한국점복 연구의 출발점으로 보는 동시에 한국점복의 전체상을 비교적 잘 집대성했다고 하는 최길성의 견해이다.²³⁾ 셋째, 『조선의 점복과 예언』이 식민지 지배를 위한 아전인수식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부정적 입장에 서있으면서도 한국점복 연구사의 기술 시점을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 두는 김종대의 견해이다.²⁴⁾

19) 김태곤, 앞의 글, 272~273쪽.

20) 村山智順, 『朝鮮の巫覡』, 朝鮮總督府, 1932, 〈凡例〉, “本調査の資料は大部分各地の警察署の手を煩はして得たる報告に依つたものである.”

21) 朝倉敏夫, 앞의 책, 110쪽; 野村伸一 저, 고운기 역, 앞의 책, 262쪽.

22) 서영대, 앞의 글, 311~316쪽.

23) 최길성, 앞의 글, 247~248쪽.

넷째, 『조선의 점복과 예언』이 1930년대 초반까지 조선에서 전승되던 다양한 점복 풍속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나름의 체계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점복 연구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서도 한국점복 연구의 효시는 1467년(세조 13)에 저술된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오행총괄(五行總括)』에 두어야 한다는 김만태의 견해이다.²⁵⁾ 나아가 김만태는 자의적(恣意的)이며 제국주의적 가치관이 내포된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점복 유형 분류를 세밀하게 비판하면서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점복의 새로운 유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²⁶⁾

다섯째, 최석영은 관련 문헌에서 자료들을 추출하고 그 자료들에 해설을 붙이고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풍조를 분류하여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무라야마의 이 보고서는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 관한 ‘역사민속학적’ 고찰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⁷⁾

3. 무라야마 지준의 점복조사 내용 분석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내용은 ‘점복습속의 추세’, ‘점복을 하는 자’, ‘점복의 유형’, ‘도참과 예언’의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점복습속의 추세**이다. 그 당시 조선의 민간에서 행해지던 점복습속은 옛 시대의 모습을 전승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과거의 점복습속을 대략 훑어보는 것이 현재의 점복습속을 이해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점복습속의 추세를 ‘상대(上代: 신라·고구려·백제·가락·부

24) 김종대, 앞의 글, 289~290쪽.

25) 김만태, 앞의 글(2008), 215쪽; 김만태, 『서거정의 명리관(命理觀) 연구—『오행총괄』서(序)와 『필원잡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26) 김만태, 앞의 글(2008), 220~227쪽. 신의(神意)가 드러나는 ‘시간·공간·인간’의 삼원(三元)을 기준으로 점복 유형을 시상점(時相占)·물상점(物相占)·인상점(人相占)·괘상점(卦相占)·인위상점(人爲相占)·계시점(啓示占)·주물상점(呪物相占)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

27) 최석영 해제, 『한국근대 민속·인류학 자료대계 4. 朝鮮の占トと豫言』, 민속원, 2008.

여), 고려, 이조, 현대'로 나누어 개관하였다.

각 시대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관련 전적(典籍)들에서 발췌하여 인용하면서 간단한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중점을 둔 '현대'의 점복습속은 당시의 점복 전설과 점복 세태로 구별해서 적고 있는데 점복 전설은 주로 손진태의 『조선민담집(朝鮮民譚集)』(1930), 점복 세태는 당시 채록된 이야기와 『경성일보』 기사 중에서 인용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점복 및 예언의 습속은 옛날에 비해 한층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였다. 말미에는 그 당시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던 점복의 종류, 점치는 목적, 점치는 시기, 점복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개괄하였다.

둘째로는 **점복하는 자들**을 상술하였다. 먼저 직업적 분류로서 점복을 전업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점복자를 전문점자·부업점자·기타 점복자 등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전문점자로는 일관·점복관·복술자·신점자·상지자(相地者), 부업점자로는 무격·맹인기도업자(독경맹인)·승려, 기타 점복자로는 학자·호사가·일반 민중을 들었다. 점복의 종류에 따른 점복자의 유형으로는 천문을 점치는 자, 지리를 점치는 자, 신력(神慮)을 점치는 자, 꿈을 점치는 자, 인상지리(人相地理)를 보는 자, 날을 점치는 자, 기타 국운을 예언하는 자,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의 변화로써 점치는 자 등이 있다고 하였다.

특이사항으로는 남성 복술자 중에서 약 8할이 맹인인데 이는 조선 특유의 현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개의 점복자는 집에서 문복자의 내방을 기다리지만 그중에는 거리로 진출하여 점업(占業)을 하는 대도역자(大道易者)도 적지 않다고 하였다. 당시 상당수의 일반가정이 점복에 관한 서적 두세 권은 소장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전문점자에서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다소나마 점복자가 아닌 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록으로 당시 점복업자들이 배포한 광고지를 수록하여 그들이 어떤 수업과 경력을 갖고 있는가를 살피는 참고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셋째는 **점복의 유형**으로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

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무라야마는 당시 조선의 점복을 자연관상점(自然觀象占), 동식물 및 기타 사물에 의한 상복(相卜), 몽점(夢占), 신비점(神秘占), 인위점(人爲占), 작괘점(作卦占), 관상점(觀相占), 상지법(相地法) 등 8가지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상지법은 앞서 발행한 『조선의 풍수』(1931)의 개요를 서술한 것이다. 8가지 점복 유형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자연관상점: 모든 자연현상이 인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 비일상적인 자연현상을 토대로 운명을 예지하는 점으로, 점복 대상에 따라 (i) 일월복(日月卜) (ii) 성복(星卜) (iii) 홍복(虹卜) (iv) 운복(雲卜) (v) 풍·설·상·로·하·뇌복(風·雪·霜·露·霞·雷卜) (vi) 수·빙복(水·氷卜) (vii) 천기점(天氣占)·월차점(月次占) (viii) 땅·산·돌·기타에 의한 점.

② 동식물 및 기타 사물에 의한 상복(相卜): 관상에 의한 점복 중 그 대상이 동물·식물·기물 및 의식주·인사(人事) 및 인상(人相)인 점복.

③ 몽점: 꿈을 신령의 계시 또는 운명의 길흉을 계시하는 것으로 여겨 꿈을 판단하는 점복으로 몽점의 내용을 인체·인사·천지·가거(家居)·기물·동물·식물의 7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몽점의 일종으로 꿈속에서 보고 들은 조짐이 그 후 우연히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된다고 하는 몽참(夢讖), 꿈속에서 우연히 만난 기이한 것이 장래에 발생하는 길흉의 서조가 된다고 하는 몽조(夢兆)도 포함.

④ 신비점: 신령과 귀신의 기탁에 의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점복으로, 신탁·신필(神筆)·공수·공창 등과 같이 직접 점자가 신령의 강신 및 신빙(神憑)을 받아 신의 뜻을 나타내는 인체강령점법[신탁점]과 쌀·동전·신장대·반혼 같은 각종 기물을 사용하여 이것들 위에 신의 뜻이 나타남을 보고 징후를 판단하는 기물강령점[신시점神示占]으로 나눈다. 이 점법을 행하는 데는 신령을 내려오게 하거나 신령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주로 무당과 박수 및 맹인들처럼 제사와 기도를 하는 자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점복이다. 신탁점에는 (i) 신빙점 (ii) 신성점(神聲占)·

신필점, 신시점에는 (i) 척미점 (ii) 동전점 (iii) 신장점(神將占, 신장대) (iv) 방울점 (v) 초혼점 (vi) 신의점(神意占, 신도神刀·신전神錢) (vii) 신점점(제비·심지).

⑤ 인위점: 의도적으로 미리 시험해보는[豫驗] 방법에 의하여 운명이나 길흉을 예측하는 점법이다. (i) 석전·줄다리기 등의 승부를 갖고 한해의 길흉을 점치는 승부점 (ii) 옷놀이·연날리기와 같은 오락·유희에 의해 한해의 운수를 점치는 오락점 (iii) 곡물·키·달집 등을 사용하여 한 해의 풍흉을 점치는 것 (iv) 등불·실·솔방울·절구·목간(木簡)을 사용하여 사람의 운세를 점치는 것 (v)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범인을 찾아내는 범인점 (vi) 간자(簡子)·화살·솔개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를 점치는 점지(占地)·복거(卜居) (vii)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 지 알 수 없을 때 침을 튀겨 갈 길을 정하는 것과 같은 기타의 방법에 의한 점.

⑥ 작괘점: 음양오행 및 수리(數理)를 기초로 하여 괘를 만들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점이다. (i) 육효점 (ii) 산통점 (iii) 송엽점 (iv) 사주점 (v) 단시점 (vi) 오행점 (vii) 옷점 (viii) 새점 (ix) 성명점.

⑦ 관상점: 사람 용모의 특징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심정, 요수·질병·빈부·귀천·화복·득실 등의 숙명과 현상, 장래를 판단하는 점복.

⑧ 상지법: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생기가 넘치는 길지를 점상(占相)하는 점복.

넷째는 **도참과 예언**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나타내는 것을 도참(圖讖)이라 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豫言)이라 한다. 도참과 예언이 장래의 운명을 예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점복과 거의 같지만, 대부분 나라의 흥망성쇠와 같이 사회적 운명관인 점에서 (개인적 운명관인) 점복과 구별되는 것이라 하였다.²⁸⁾

이상과 같이 무라야마의 연구는 조선의 점복에 관한 내용을 집성해서 다루고 있지만 행정기관을 통한 상명하달식의 공문서에 의해 양산된 다른

28) 村山智順, 『朝鮮の占トと豫言』, 朝鮮總督府, 1933, 548쪽.

조사보고서와는 그 차원을 약간 달리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많은 내용을 고대에서 당대에 이르는 다양한 관련 전적에서 발췌하여 인용하면서 간단하나마 해설과 무라야마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라야마가 문헌조사를 통해 참고한 자료들을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 등장하는 차례대로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 『동경잡기』, 『용재총화』, 『삼국사기』, 『사군지(四郡志)』, 『삼국지』, 『해동역사(海東譯史)』, 『편년통록(編年通錄)』, 『중경지(中京誌)』, 『팔역지(八域志)』²⁹⁾, 『동국여지승람』, 『고려사』, 『필원잡기』, 『태조실록』, 『조선금석총람』, 『대전회통』, 『지봉유설』, 『대동야승』, 『역학서언』, 『증보산림경제』³⁰⁾, 『청과극담(靑坡劇談)』, 『오백년기담(五百年奇譚)』(최동주, 1913), 『청강쇄어(淸江瑣語)』, 『조선여속고』(이능화, 1927), 『연려실기술』, 『석왕사연기(釋王寺緣起)』, 『해동잡록』, 『석담일기』, 『조선통신』, 『조선기독교 및 외교사』(이능화, 1928), 『조선해어화사』(이능화, 1926), 『조선민담집』(손진태, 1930),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손진태, 1930), 『경성일보』, 『증보문헌비고』, 『오산설림초고(五山說林草藁)』, 『상춘잡록』, 『조선의 풍수』, 『조선의 무격』, 『조선의 미신과 속담(朝鮮の迷信と俗傳)』(樫木末實, 1913), 『동국세시기』³¹⁾, 『열양세시기』, 『패관잡기』, 『Popular Poetry of the Baloches』(M. Longworth Dames), 『조선휘보(朝鮮彙報)』, 『세계 역사가의 역사(Historian's History of the World)』, 『민속학』,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조선의 여류문학』(김태준), 『동아일보』, 『성호사설』, 『조선풍속집』(今村鞆, 1914), 『만복진결(萬福眞訣)』, 『오사카 매일신문』, 『송와잡설』, 『목은집』, 『동문선』, 『익재난고』, 『천현록(天倪錄)』, 『동

29) 1751년에 이중환(李重煥)이 저술한 인문지리서인 『택리지(擇里志)』의 별칭이다.

30) 1766년에 유중림(柳重臨)이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를 증보하여 엮은 필사본의 농서 겸 가정생활서이다. 저본인 『산림경제』가 저자명이 없이 전해지다 보니 정약용(丁若鏞) 또는 박세당(朴世堂)의 저서로 잘못 전하여지기도 하였다.

31) 1849년에 홍석모(洪錫謨)가 완성한 세시풍속집인데 서문을 이자유(李子有)가 적었던 관례로 무라야마 지준은 저자를 이자유로 착각했으며 서명(書名)도 『조선세시기』로 바꿔 적었다.

국이상국집』, 『조선무속고』(이능화, 1927), 『세종실록』, 『오주연문장전산고』, 『조선사정신문(朝鮮事情新聞)』, 『청장관전서』, 『일본백과대사전』, 『경도잡지』, 『조선의 연중행사(朝鮮の年中行事)』(吳晴, 1931), 『복서정종(卜筮正宗)』, 『신과년운비감(神課年運秘鑑)』(京城 明齊易學公論社 斷易部, 1933), 『가정백방길흉비결(家庭百方吉凶秘訣)』(김동진, 1918), 『사주자해화주역(四柱自解書周易)』(지송옥, 1920), 『인상(人相)』(배상철), 『조선비결전집(朝鮮秘訣全集)』, 『정감록(鄭鑑錄)』(김용주, 1924), 『경성신문』, 『조선신문』, 『중앙일보』, 『고려사절요』, 『인조실록』, 『국조보감』, 『조선사회사업』, 『응천일기』, 『계곡집』, 『백사집』, 『순오지』, 『조선중앙일보』 등 총 87종이다.

이처럼 고대의 전적(典籍)에서부터 당대의 신문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문헌자료를 통해 무라야마는 당시에 행해지던 점복풍속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승되어오던 점복풍속도 함께 조망하였다.

4. 무라야마 지준의 점복조사의 가치와 한계

이른바 무라야마의 민간신앙 4부작으로 불리는 『조선의 귀신』, 『조선의 풍수』, 『조선의 무격』,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각 권 속표지를 보면 『조선의 귀신』이 민간신앙 제1부, 『조선의 풍수』가 민간신앙 제2부, 『조선의 무격』이 민간신앙 제3부이고, 『조선의 점복과 예언』은 『조선의 무격』의 범례(凡例)에 따르면 본래는 『조선의 무격』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인쇄 사정으로 인해 나누어서 발간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는 ‘민간신앙 제4부’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다.

이는 무라야마가 점복을 무격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傍證)이 된다. 그러나 정작 『조선의 점복과 예언』 가운데서 무격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신비점’뿐이고 자연관상점, 동식물 및 기타 사물에 의한 상복, 몽점, 인위점, 작괘점, 관상점, 상지법 등 대부분은 무격과 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실제 점복의 풍속에서도 무격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는 일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무라야마 점복연구의 가치와 한계는 점복자료의 수집과 집성, 점복유형의 분류, 점복자료의 해설과 활용 측면으로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 번째로 **점복자료의 수집과 집성** 측면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라야마는 90종에 가까운 다양한 문헌들에서 조선의 점복 및 예언과 관련된 자료들을 발췌하고 그 자료들에 대해 해설을 붙이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내용을 전개하였다. 특히 1910년대 이후 자료 중에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듯한 이야기와 당시 신문기사에서 인용한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럼 점들이 『조선의 점복과 예언』이 그의 다른 조사보고서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최석영은 『조선의 점복과 예언』을 해제하면서 “이 조사보고서는 점과 예언과 관련된 문헌에서 자료들을 추출하고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을 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관련 문헌들을 인용하고 전국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풍조를 분류하여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무라야마의 이 보고서는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 관한 ‘역사민속학적’ 고찰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³²⁾라고 하였다.

손진태도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서평에서 “이 책은 『조선의 풍수』와 더불어 4부작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인데, 그 자료가 정확한 점과 민속학적 흥미가 풍부한 점 등에서 나는 이것을 풍수 이상의 양서(良書)로 추천하고 싶다.”³³⁾고 말한 바가 있다.

아사쿠라 도시오(朝倉敏夫)는 무라야마의 『조선 시장 연구(朝鮮場市の研究)』의 해제에서 민간신앙 4부 모두 대작이며 총 매수가 2천 6백여 쪽

32) 최석영 해제, 『한국근대 민속·인류학 자료대계 4. 朝鮮の占トと豫言』, 민속원, 2008.

33) 손진태, 「村山智順氏の民間信仰四部作を讀みて」, 『民俗學』 5(10), 民俗學會, 1933(朝倉敏夫 해제, 村山智順 지음, 『朝鮮場市の研究』, 國書刊行會, 1999, 278쪽 재인용), “此書は『朝鮮の風水』とともに四部作の中で最も優なるものであらうが、その資料の正確なる点と、民俗學的興味の豊富なる点等において、私はこれを風水以上の良書として推したいのである.”

으로 조선민속학계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수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자료 수집에 있어서 경찰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무라야마 개인의 노력에 의해 이룬 것이며 수많은 문헌을 섭렵하고 민속상의 자료도 대단히 풍부하게 수집되어 있다고 하였다.³⁴⁾

손진태를 비롯하여 최길성·서영대·김종대·아사쿠라·김만태·최석영 등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무라야마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 대해서는, 특히 방대한 점복자료의 집성이란 측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다.

그러나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서 2/3가량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점복의 유형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료 수집상에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있다. ‘신비점’은 무라야마가 직접 현지조사를 한 듯한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자연관상점’을 비롯하여 ‘동식물 및 기타 사물에 의한 상복’, ‘인위점’의 내용 중에는 행정기관과 경찰인원을 동원하여 공문 등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취합한 후, 항목별로 분류해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당초 『조선의 점복과 예언』과 같이 발간될 예정이었던 『조선의 무격』의 범례에서 “본 조사의 자료 대부분은 각지 경찰서의 손을 번거롭게 해서 얻은 보고에 의한 것이다.”³⁵⁾라는 기록도 이런 사실을 잘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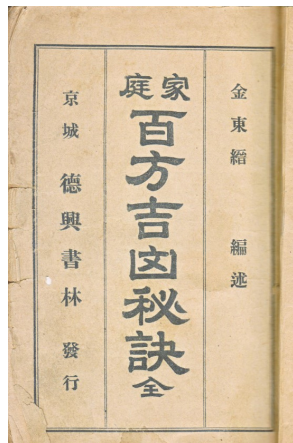
그래서 손진태도 무라야마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공적을 칭찬하면서도 그의 방법·정리·분석에 대해서는 엄한 비판을 하였다.³⁶⁾

34) 朝倉敏夫 해제, 村山智順 지음, 앞의 책, 276쪽, “四部いづれも堂々たる大冊を成し, 紙数実に併せて二千六百余頁, 朝鮮民俗學界における一大收穫と謂はざるを得ない. のみならず, 氏はその資料収集において, 若干の援助を警察方面に負うているといふものの, 殆ど大部分のそれは氏個人の努力によって得たものであるらしい. あらゆる文献を涉獵し, 民俗上の資料をも可なり豊富に収集せられている.”

35) 村山智順, 『朝鮮の巫覡』, 朝鮮總督府, 1932, 〈凡例〉, “本調査の資料は大部分各地の警察署の手を煩はして得たる報告に依つたものである.”

36) 朝倉敏夫 해제, 村山智順 지음, 앞의 책, 277쪽, “孫晉泰は, このように村山の研究を肯定的に評價し, その功績を讃えているだけでなく(…)その方法, 整理, 分析において厳しい批判も加えている.”

이는 편자(編者)가 그(『朝鮮の巫覡』) 범례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 자료의 대부분이 각지 경찰서의 보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자료가 너무 간략하고 정확성이 결여되고 또한 조잡하므로 학술상의 자료로는 유감스럽게도 그 가치를 크게 인정할 수 없다. 물론 이 책임은 보고자가 져야 하지만 편자의 탓으로 간주해야 할 부분도 결코 적지 않다.³⁷⁾



〈그림 1〉
『가정백방길흉비결』(1918)

‘작괘점’, ‘관상점’은 관련 문헌에서 대부분 전재(轉載)해온 것이다. 예를 들면 작괘점의 경우 당시 경성에서 발행된 『가정백방길흉비결(家庭百方吉凶秘訣)』(김동진, 1918) 등의 역점서(易占書)에서³⁸⁾, 관상점의 경우 당시 장안에서 관상가로 크게 활동하던 춘강(春岡) 배상철(裴相哲)이 주필한 『인상(人相)』이란 잡지³⁹⁾에서 옮겨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점복유형의 분류** 측면이다. 학술적 연구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상을 유형화할 때는 그 대상 항목들이 중복되거나 누락될 이 없도록 명료하면서도 가치중립적인 기준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라야마의 점복연구에서 설령 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그냥 지나친다하더라도 무라야마가 행한 점복의 유형 분류는 『조선의 점복과 예

37) 손진태, 앞의 글(朝倉敏夫 해제, 村山智順 지음, 앞의 책, 277쪽 재인용), “これは編者がその凡例においてことわってあるように、その資料の大部分が各地の警察署の報告によるものである。従っていづれも簡に過ぎ、正確さを欠き、且つ又粗雑にして、學術上の資料としては遺憾ながら多くのその價值を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この責は勿論報告者が負うべきであらうけれども、編者の咎として見逃し難いところも決して少なくはない。”

38) 제8장 작괘점(作卦占)의 당사주법(唐四柱法)·단시점(斷時占) 등은 『가정백방길흉비결(家庭百方吉凶秘訣)』(김동진, 덕흥서림, 1918)에 의한 것이다. 村山智順, 『朝鮮の占トと豫言』, 朝鮮總督府, 1933, 456·472쪽.

39) 제9장 관상점(觀相占)의 맨 말미에 “이상은 주로 배상철 씨 주재 잡지 『인상』에 의한 것이다(以上は主として裴相哲氏主宰雜誌『人相』に依る).”라고 적고 있다. 村山智順, 『朝鮮の占トと豫言』, 朝鮮總督府, 1933, 539쪽.

언』의 내용 중에서도 그의 자의적·편향적이며 제국주의적인 가치관이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⁴⁰⁾

무라야마는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서 당시 조선의 다양한 점복을 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다. 무라야마의 점복 분류는 1930년대 초반까지 조선에서 전승되던 다양한 점복 풍속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나름의 체계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점복 연구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 분류상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발간 의도를 의심케 하는 부분과 직결된다.

첫째, 점복대상·점법·점구 등 여러 기준을 동시에 혼용하여 분류하다 보니 그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되거나 중복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② 동식물 및 기타 사물에 의한 상복의 인상점(人相占)은 ⑦ 관상점과 겹치며, ④ 신비점의 신시점에서 (ii) 동전점과 (vi) 신의점의 신전(神錢)도 겹치며, ⑥ 작괘점의 (i) 육효점 (ii) 산통점 (iii) 송엽점도 지나치게 세분화였다. 육효점의 경우만 보더라도 결국 동일한 점법인데, 사용하는 점구에 따라 별도의 점복 유형으로 본다면 점복의 유형수는 중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많은 점복의 가짓수 늘리기를 의심할 수 있다.

둘째, 점복 유형의 불필요한 가짓수 늘리기와 반대되는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던 점복 중 매우 논리적이며 이론적 체계를 잘 갖추어서 학문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당시 학자·관료 등 지식인들에 의해 널리 학습·이용되어왔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고려사(高麗史)』·『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에도 그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사주명리(四柱命理)⁴¹⁾·자미두수(紫微斗數)⁴²⁾·육임(六壬)⁴³⁾·기문

40) 무라야마의 점복 유형 분류에 관한 비판적 고찰은 논자의 선행연구인 『한국 점복의 정의와 유형 고찰』(『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을 근간으로 기술한다.

41) 사주명리(四柱命理): 일월오성·28수 등 천체의 운행을 포함한 자연의 질서와 그 질서에 상응하는 인사 관계를 음양의 소식(消息)과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를 통해 해명하려는 음양오행론을 정립하고 간지력(干支曆)을 만들었던 중국과 주변국가(한·일)에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간지(干支)로 치환한 후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그 상호관계를 해석

둔갑(奇門遁甲)⁴⁴⁾ 등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주명리·자미두수·육임은 『경국대전』에서 명과학(命課學)의 시험과목으로도 등장할 정도이다.⁴⁵⁾ 무라야마가 우리나라 점복에 관한 방대한 문헌자료와 조사자료를 수집하면서 『경국대전』을 비롯한 이후의 법전(法典)과 정사(正史)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이런 고급 점법들만 누락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실수라기보다는 학문적 체계를 갖춘 점법들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 개입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좀 더 부연하자면 조선 최초의 법전으로 1397년(태조 6) 12월에 편찬된 『경제육전』에는 서운관에서 천문(天文)·점산(占算)으로 시험하

하여 인간의 삶과 관련된 요수·빈부·귀천·성패 등의 차별함을 추리하고자 만든 예언 체계이다.

- 42) 자미두수(紫微斗數): 일종의 성상학(星相學)으로 모두 118개나 되는 많은 별자리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광해군 때 부제학, 인조 때 경상도관찰사를 지낸 김치(金緻)는 어릴 적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경서에 통달하였고, 특히 점술을 연구하여 천문에 밝았으며 저서로 『심곡비결』이 있는데 자미두수에 관한 책이다. 인조 때 좌의정으로 남한산성 수어사를 겸임한 심기원(沈器遠)은 前지사 이일원, 광주부윤 권억 등과 모의하여 회은군 이덕인을 추대하려는 반란을 꾀하는 과정에서 자미두수로 부하 장수 황익의 사주(四柱)를 추산하였다(『仁祖實錄』 22년 3월 己酉일).
- 43) 육임(六壬): 점보는 시각의 12지와 점보는 달의 계절과 점보는 날의 간지(干支)를 토대로 사물의 성패와 길흉을 판단하는 점술이다. 1057년(고려 문종 11) 송나라에서 귀화한 장완이 둔갑삼기법과 육임점의 실력을 인정받아 태사감후의 벼슬에 봉해졌다는 기록이 『高麗史』 世家·文宗2조에 나오며, 1785년(정조 9) 『정감록』과 직접 관련된 최초의 옥사에서 역모에 연루된 주형채가 천문역법·육임·기문둔갑 등 술수를 알았으며, 1801년(순조 1) 천주교에 대한 최초의 대대적인 박해인 신유옥사 때는 “바다 가운데의 진인(真人)이 육임과 기문둔갑을 알고 있다.”는 참언이 유포되기도 했다(『正祖實錄』 9년 3월 辛未일, 『純祖實錄』 1년 4월 丙寅일).
- 44) 기문둔갑(奇門遁甲): 인간은 시간의 영향뿐만 아니라 공간으로부터도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우주의 시간적 의미를 표시하는 ‘간지’ 외에 공간적 개념인 ‘9궁’을 함께 도입하여 인사·지리 등을 판단하는 점술이다. 통일신라 혜공왕(재위 765~780) 때 김암(金巖)이 당에서 음양가법(陰陽家法)을 배워 둔갑입성법(遁甲立成法)을 지었다고 한다(『三國史記』 列傳3 金庾信下).
- 45) 『經國大典』 禮典 取才, “명과학의 경우 원천강은 배강으로 하며, 삼신통재·대정수·범위수·육임·오행정기·극택통서·자미수·응천가·석자평·현여자평·난대묘선·성명총화 등은 임문으로 한다(命課學, 袁天綱, 背講, 三辰通載·大定數·範圍數·六壬·五行精記·剋擇通書·紫微數·應天歌·徐子平·玄與子平·蘭臺妙選·星命摠話, 已上臨文).”

여 인재를 뽑는 법이 기재되어 있었으며⁴⁶⁾ 천문·지리(地理)·성명(星命)·복과(卜課)를 총칭하여 음양학이라 하였다. 그러나 1438년(세종 20)부터 지리에 관한 학문은 풍수학이라 칭하고, 역상과 일월성신에 관한 학문은 천문학이라 칭하게 되자 성명·복과에 관한 학문만 음양학이라 일컫게 되었다.⁴⁷⁾ 그 후 1466년(세조 12)에 풍수학을 지리학으로 개칭하면서 음양학을 명과학으로 이름 바꾸었다.⁴⁸⁾ 이에 따라 음양과는 천문학·지리학·명과학으로 삼분되어 이후 조선조 내내 변함없이 꾸준히 시행되었다.⁴⁹⁾

그리고 명과학을 비롯한 음양과는 과거(科擧)와 취재(取才)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명과학의 과거 과목은 1466년(세조 12)에 편찬된 『경국대전』 『예전』의 제과(諸科) 항목에서 『원천강』은 배강(背講)하고 『서자평』·『응천가』·『범위수』·『극택통서』·『경국대전』은 임문(臨文)하도록 규정되었다.⁵⁰⁾ 명과학의 취재 과목은 1430년(세종 12)에 『주역점』·『육임점』·『성명서』·『대정삼천수』·『범위수』·『자미수』·『황극수』·『원천강』·『오행정기』·『전정역수』·『응천가』·『오충구』·『삼신통재』·『난강망』·『관매수』 등으로 규정되어 시행되었다.⁵¹⁾ 그 후 『경국대전』 『예전』의 취재 항목에서는 『원천강』은 배강하고, 『삼신통재』·『대정수』·『범위수』·『육임점』·『오행정기』·『극택통서』·『자미수』·『응천가』·『서자평』·『현여자평』·『난대묘선』·『성명총화』 등은 임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⁵²⁾

그 외 명과학의 시취(試取) 절차 등에 관해서도 『경국대전』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이후의 후속 법전과 정사에도 계속 등장한다. 따라서 『조선의 점복과 예언』 제1장 제3절 ‘이조(李朝)에서의 점복습속’ 앞 단락에서 ‘명과학(命課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6) 『世宗實錄』 권35, 세종9년 3월 辛卯.

47) 『世宗實錄』 권83, 세종20년 10월 癸酉.

48) 『世祖實錄』 권38, 세조12년 1월 戊午.

49) 김만태,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 『徐子平』에 관한 연구」, 『장서각』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69쪽.

50) 『經國大典』, 「禮典」 諸科 陰陽科初試.

51) 『世宗實錄』 권47, 세종12년 3월 戊午.

52) 『經國大典』, 「禮典」 取才.

명과학의 시취과목들에 대해서는 내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는 무라야마의 시각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잘 짐작케 해준다고 판단된다.

셋째, 자연관상점·동식물 및 기타 사물에 의한 상복·몽점·신비점 등과 같이 우연적이며 신비적인 속성을 강하게 지닌 점복들을 위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이런 점복들이 앞에 배치되면서 큰 독립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 자연관상점·동식물 및 기타 사물에 의한 상복은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개의 큰 유형인 것처럼 나누고 있는 것 등이다.

비록 조선의 민간신앙을 조사하는 무라야마의 본래 목적이 학술적인 연구가 아니라 사정자료의 수집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무라야마의 점복유형 분류는 지나치게 누락·축소·중첩되는 등 명쾌하지 않다. 이는 점복이 인류의 보편적 문화현상임을 애써 외면한 채 우리 민족의 미개성과 타율성을 왜곡·강조함으로써 일제의 강제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런 제국주의적 의도가 바로 무라야마가 나눈 점복의 8가지 유형 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것이다.

즉 무라야마는 당시 조선의 다양한 점복을 자연관상점, 동식물 및 기타 사물에 의한 상복, 몽점, 신비점, 인위점, 작괘점, 관상점, 상지법 등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세분화하면서 가치중립적인 학술적 분류를 하지 않고 자의적(恣意的)인 비체계적(非體系的) 분류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 우연적이고 신비적인 속성을 강하게 지닌 점복들은 지나치게 세분하고 강조하여 점복 유형의 불필요한 가짓수 늘리기를 한 반면, 매우 논리적이며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학문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법들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축소시켰다. 즉 사주명리·자미두수·육임 등과 같이 학문적·논리적 체계에 의한 점법 — 그래서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되어 약 4백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선조 명과학 전공자들의 본업서이자 시취서로 활용되어온 점법들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자연관상점·동식물 및 기타 사물에 의한 상복·몽점·신비점 등과 같이

우연적·신비적 속성이 강한 점복들을 위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⁵³⁾

이러한 무라야마의 시각은 단순히 정치적인 편향 때문이 아니라 점복에 대한 그의 학술적 지식이 깊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점복 관련 문헌자료의 취합과 그 해설의 내용으로 볼 때 무라야마는 이미 술수와 역학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조선의 점복에 대한 무라야마의 편향된 시각은 그가 가진 지식의 한계 때문보다는 의도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세 번째로는 **점복자료의 해설** 측면이다. 다른 학자들과 달리 노무라 신이치(野村伸一)는 “이 책(『조선의 점복과 예언』)은 단순한 자료의 분류와 나열에 지나지 않아 참으로 지루하다. (···) 나는 손진태처럼 이 책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할 수 없다.”⁵⁴⁾고 하였다. 사실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대부분 분량을 차지하는 점복의 유형에서 무격이 행하는 신비점은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 외는 행정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취합 분류한 후 단순히 나열한 것에 가깝다.

점복습속의 추세, 점복을 하는 자, 도참과 예언의 부분에서는 관련 전적을 제시하면서 무라야마가 나름대로 해설을 하고 자신의 견해를 첨언하였기에 독자로 하여금 읽는 내용에 대해 사실감과 흥미를 갖도록 한다. 그러나 신비점을 제외한 다른 점복의 유형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마치 속담(수록)집을 대하는 느낌마냥 — 수수께끼집이라면 그나마 나을 텐데 — 건조하고 지루하다.

이것은 자료수집상의 방법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무격이 행하는 신비점은 무라야마가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도 수집했으므로 나름 현실감이 있지만 그 외 점복유형 자료는 관련 책자에서 그냥 옮겨 신거나 경찰서·행정기관 등을 통해 보고서로 수집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라야마가 실제로 해설하거나 논평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53) 김만태, 앞의 글(2008), 215~218쪽.

54) 野村伸一 저, 고운기 역, 앞의 책, 284쪽.

그러므로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 자료집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라야마가 무격 활동의 일환으로서 점복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점복자료의 활용** 측면이다. 이는 무라야마가 행한 민간신앙 조사의 목적과 직결된다. 1919년 3·1운동을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고 조선인의 사상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민간신앙에 있다는 점을 조선총독부에서는 알았기에 무라야마를 촉탁해서 조사를 위임했던 것이다.

무라야마는 ‘귀신신앙·묘지풍수·무격의 양귀(攘鬼)·점복’의 연관선상에서 점복은 무격이 양귀를 하기에 앞서 귀신의 의사를 알아내는 수단이라고 인식하였다. 무라야마가 조선의 점복풍속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긴 부분도 있지만 조선인은 점복에 관심이 많고 점복을 매우 신뢰하여 무시로 점을 보며, 점치는 소질도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⁵⁵⁾

그러면서 무라야마는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서문에서 조선 민중은 다른 외력과 외물에 의해 자기생활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대로 이끌려 간다고 하는宿命관·운명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교화와 과학적 지식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상식적 판단력과 올바른 비판력을 갖추지 못한 탓에 오래전부터 조선에서 점복신앙이 널리 성행해오고 있다고 하였다.⁵⁶⁾

인간의 점복행위는 어느 시대, 어디서나 널리 존재해온 인류의 보편적 문화현상임을 각 문화권의 수많은 사례에서 익히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무라야마는 점복과 운명문화는 그 형태와 정도만 달리할 뿐 시공을 초월한 보편 현상이라는, 이런 자명한 사실을 외면한 채 조선 점복의 저급성·원시성을 고의적으로 강조하고, 조선 민중의 의식세계를 미개성과 타율성·소극성으로 왜곡함으로써 사회교화를 빌미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저변에 깊숙이 내재시켰던 것이

55) 村山智順, 『朝鮮の占トと豫言』, 緒言 2쪽, 本文 5~6, 47, 63, 79, 102~103쪽 등.

56) 위의 책, 緒言 3쪽.

다. 그러므로 피상적인 고찰에 머물러 이런 점을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5. 맺음말

점복은 한국 민속에서 주요한 연구 대상이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까지 점복신앙 분야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제대로 없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제 수준의 피상적 고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학계에서 점복민속에 관심이 덜하다보니 지금까지 한국의 점복신앙에 관한 연구는 무속신앙이나 다른 민속신앙 분야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당시 조선의 점복자료를 집성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니는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의占卜と豫言)』(1933)을 통해 무라야마의 점복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점복신앙 연구에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였다.

무라야마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은 한국점복 연구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다. 조선총독부는 3·1운동을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고 조선인의 사상을 이해하는 요체는 민간신앙에 있다는 점을 깨닫고서는 무라야마를 촉탁해서 조사를 위임하였고 무라야마는 황국 신민화를 위한 사회교화의 구실 제공이라는 그 목적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의 점복과 예언』은 바로 그 산물인 것이다.

무라야마는 ‘귀신신앙·묘지풍수·무격의 잡귀 쫓아내기·점복’의 연관 선상에서 귀신이 요구하는 바를 무격을 통해 아는 수단이 점복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실제 점복 풍속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 또한 무격 이외의 다른 점복자가 점복을 행해지는 경우도 많으며, 일반인들이 스스로 점복을 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무라야마는 점복행위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선의 점복과 예언』이란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라야마는 고대에서 당대까지 약 90종의 다양한 관련 문헌들에서 내용

을 발췌하여 인용하고 자신의 해설과 견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조선의 점복과 예언』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복의 유형은 자료 수집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령 점복의 유형 중에서 〈신비점〉은 나름대로 직접 현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 외는 경찰력을 동원해 수집한 자료를 단순히 취합 분류하여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되며 무라야마 자신의 견해와 해설도 누락되어 있다.

학술 연구를 위해 어떤 대상을 유형화한다면 그 대상 항목들이 중복되거나 누락됨이 없도록 명료하면서도 가치중립적인 기준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라야마는 당시 조선의 다양한 점복을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면서 자의적인 비체계적 분류를 감행했으며, 그 결과 학문적·논리적 체계에 의한 점법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우연적·신비적 속성이 강한 점복들을 위주로 분류하였다. 이는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발간이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점복풍속은 조선에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며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는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자의적(恣意的)으로 조선 점복풍속을 통해 조선인은 미개하고 타율적·소극적이라고 왜곡함으로써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 충실하였다.

무라야마의 손에서 『조선의 점복과 예언』이 나온 지 80년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무라야마가 그어놓은 제국주의적 시각의 점복에 대한 인식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개선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자료

『經國大典』,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宣祖實錄』, 『世祖實錄』, 『世宗實錄』, 『肅宗實錄』, 『純祖實錄』, 『仁祖實錄』, 『正祖實錄』, 『太祖實錄』.

2. 논저

- 김만태, 「한국 점복의 정의와 유형 고찰」, 『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
- ,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 『徐子平』에 관한 연구」, 『장서각』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 「서거정의 명리관(命理觀) 연구—『오행총괄』서(序)와 『필원잡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 김종대, 『점복의 역사』, 『한국민속사입문』, 지식산업사, 1996.
- 김태곤, 「일제가 실시한 조선민간신앙조사 자료의 문제점」, 『石宙善교수회갑기념 민속학논총』, 石宙善교수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71.
- 김희영,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인식에 관한 연구: 일제강점기 민속조사 보고서 중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남근우,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 류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현대사상사, 1984.
- 서영대, 「한국점복의 연구」,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 野村伸一 저, 고운기 역, 『한국, 1930년대의 눈동자: 무라야마가 본 조선 민속』, 이회문화사, 2003.
- 장장식, 「풍수신앙의 연구」,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 장철수, 「조선총독부 민속 조사자료의 성격과 내용」, 『정신문화연구』 21(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 村山智順 지음, 김희경 옮김, 『조선의 점복과 예언』, 동문선, 1991.
- 최길성, 「점복과 예조의 분석」,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9.

- 최석영, 「일제의 구관(舊慣)조사와 식민정책」, 『비교민속학』 14, 비교민속학회, 1997.
- 최석영 해제, 『한국근대 민속·인류학 자료대계 4. 朝鮮の占トと豫言』, 민속원, 2008.
- 江田俊雄, 「村山智順氏の『朝鮮の占トと豫言』を読む」, 『朝鮮之圖書館』 3-5, 朝鮮圖書館研究會, 1933.
- 김효경, 「『朝鮮の占トと豫言』を読む」, 『大正大學學報』 17, 大正大學, 1934.
- 손진태, 「村山智順氏の民間信仰四部作を讀みて」, 『民俗學』 5-10, 民俗學會, 1933.
- 野村伸一, 「村山智順が見た朝鮮民俗」, 『自然と文化』 66, 日本내셔널트러스트, 2001.
- 朝倉敏夫, 「村山智順師の謎」, 『民博通信』 79, 日本國立民族學博物館, 1997.
- 朝倉敏夫 해제, 村山智順 지음, 『朝鮮場市の研究』, 國書刊行會, 1999.
- 村山智順, 『朝鮮の鬼神』, 朝鮮總督府, 1929.
- _____, 『朝鮮の風水』, 朝鮮總督府, 1931.
- _____, 『朝鮮の巫覡』, 朝鮮總督府, 1932.
- _____, 『朝鮮の占トと豫言』, 朝鮮總督府, 1933.
-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1938.

〈Abstract〉

Critical Review on the Survey of Murayama Jijun (村山智順)
upon Divination of Joseon (朝鮮占卜)

Kim, Man-Tae

Chousen no senboku to yogen 朝鮮の占卜と豫言 (The Divination and Prognostication of Joseon) (1933) reported by Murayama Jijun (村山智順) from the survey on folk faith of Joseon entrust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holds the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studies on the divination in Korea in that it collected vast amount of data of folk customs associated with the divination in Joseon till the early 1930s.

However, in this report, there are problems which exaggerated, distorted, or omitted the realities due to its indirect approaches viewed the subjects with eyes of the Imperialistic ideologies. And there have been no critical reviews upon such issues so far while the works of Murayama Jijun have been simply referred to by many researchers examined the divination in Korea without filtration.

Even though the custom of divination wasn't limited within Joseon but was human's universal culture all time from the West to the East, Murayama was devoted to conveying the intention of justifying Japan's colonization by highlighting low-level and primitive features of Joseon's divination arbitrarily from the imperialistic perspective and distorting Joseon people to heteronomous and passive on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the works of Murayama Jijun by demarcating the extent of his works in respects of the collection, compilation, classification, interpret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survey data.

* Key Words: Divination, Divination faith, Survey on Divination, Folk Faith,
Murayama Jijun (村山智順)

• 논문투고일: 2017년 12월 19일 • 심사완료일: 2018년 2월 21일 • 게재결정일: 2018년 2월 22일